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이공본풀이계 서사물의 변용과 의미(1)—

이 수 자

요 약

이공본풀이는 현재 제주도 무속제의에서 구송되는 무속신화이다.

본토에서는 이 신화와 유사한 이야기가 무가에도 있고, 지림사의 연기설화로도 있으며, 석보상절 속에는 안락국태자경으로, 그리고 고대소설 안락국전 등으로도 존재하고 있어, 이 신화는 그간 학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었는데, 현재까지는 이공본풀이가 본토의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고는 이 학설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시도한 것이다. 제주도 큰굿 내에서 이공본풀이가 차지하는 위상을 신화 명칭, 제의언어,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 그리고 서천꽃발을 통해 살펴 보면, 이 신화는 무속제의가 형성될 때 창조된 무속고유의 신화로 볼 수 있다. 이런 신화가 무속에서 구송되는 것은 제주도 및 평안도에서 나타나는데, 제주도는 섬이어서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고, 평안도는 변모된 모습으로 잔존하고 있다. 이공본풀이는 무속제의가 형성될 때 창조된 신화로서 그 형성시기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다. 때문에 이공본풀이가 본토의 안락국태자경 같은 불경을 수용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이공본풀이가 모태가 되어 지림사 연기설화나 안락국태자경 같은 서사물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I. 머리말

현재 제주도의 큰굿 속에서 불리우고 있는 ‘이공본풀이’라는 신화는 그간 계속 국문학계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이것은 이 신화와 비슷한 내용이 평북과 경남 지역의 무가에서 불리우고 있고,¹⁾ 경북 경주 근처의 월성군 양북면 호암리에 있는 사찰인 ‘지림사(祇林寺)의 연기설화’(韓國學文獻研究所 1977)로도 전승되고 있으며, 월인석보(月印釋譜)속에도 그 내용이 ‘안락국태자경’이라는 불경으로 전하고 있고,²⁾ 고대소설 중에는 『안락국전』이라는 작품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이들 내용은 또 불화로도 전승되고 있는데, 지림사의 대응전에 걸렸었던 불화는 현재 동국대 경주분교 박물관에, 그리고 조선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안락국태자경변상도는 일본의 靑山文庫에 소장되어 있다.³⁾ 이 중 후자는 물론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건너가 있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서사물들이 이처럼 신화·전설·불경·소설 등 문학의 여러 갈래에 걸쳐 존재하고 있고, 또 회화로도 남아 있다는 사실은 여간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 서사물만큼 우리 문화사나 혹은 문화사에 있어 깊이 뿌리를 드리우고 있는 서사물도 드물다 할 것이다. 그간 학계에서 이공

1) 평북 강계 지역본은 ‘신선세턴님청배’(손진태 1930), 경남 김해 지역본은 ‘악양국왕자노래’(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23-146), 경남 동래 지역본은 ‘방심굿’(문화재관리국 1972: 228-263)을 참조할 것.

2) 원래 월인석보 권8 詳節部에 실려 있는 바 이공본풀이와 비슷한 내용의 서사물에는 이름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를 가리켜 ‘안락국태자경’이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한다. 일찌기 여기에 실려 있는 이 내용의 서사물에 관심을 가졌던 사재동교수(1967)는 이를 가리켜 ‘안락국태자전’이라 하였는데, 서대석교수(1968:84)는 이를 宗經이거나 僞經이거나 간에 불경의 번역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보아 ‘經’字를 붙이고자 한다고 하여 ‘안락국태자경’이란 명칭을 썼다. 이후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본고 역시 앞선 연구를 중시하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빌어 쓰기로 한다.

본풀이를 비롯한 이들 서사물과 불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온 것도 사실은 여기에 근거했던 것이다. 본고에서도 역시 이런 점에서 이들 서사물과 불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형성문제와 상관관계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문학적 작품들에 대한 연구가 진척이 되면, 자연히 회화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아 우선은 문학적인 작품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여기에서 다루고자 한다.

무속신화 이공본풀이, 지림사 연기설화, 안락국태자경, 안락국전 등의 공통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남편이 갑자기 어떤 신성공간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임태한 부인도 함께 길을 떠난다. 중도에서 부인은 힘이 들어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장자 집에 종으로 팔려 남아 여기에서 아들을 낳는다. 성장한 후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몰래 떠나고, 이 일로 하여 어머니는 장자에게 죽임을 당한다.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을 알고 통곡을 한다.

남편이 가야 할 장소로 이공본풀이는 ‘서천꽃밭’, 그리고 지림사 연기설화나 불경, 소설들은 광유성인(부처님)이 계시는 ‘임정사’로 나와 그 공간의 이름이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이곳이 신성공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같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은 비슷하지만 이들의 신분상의 성격은 조금씩 달라서 내용상에는 많은 변별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 가족의 이합집산 양상과 그 비극적 성격 및 이것을 이끌어 가는 서사구조가 같아서, 이미 선학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들은 하나의 유형, 또는 같은 서사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3) 熊谷宣夫(1969)을 참조하면, 청산문고는 일본 高知縣 佐川町에 있는데, 여기에는 한문 金字의 銘記가 있는 불화가 있다고 한다. 글에는 이것은 사라수(沙羅樹)대왕 모습을 그린 옛 불화가 낡아서 새로 그린 것이라는 내용과 주상전하와 왕비의 성수만세(聖壽萬歲)를 기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연기(年記)는 萬曆4년(이 논문의 필자는 이를 조선 선조 9년, 서력기원 1576년으로 보고 있다) 이라 한다.

이들은 그 형성에 있어 상호 깊은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어떤 한 작품을 모본으로 삼아서, 서사적 구조는 그대로 간직한 채 각각의 문학적 갈래에 맞춰 내용을 나름대로 재창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일군의 서사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것도 사실은 어떤 작품의 문학성을 논하기 보다는 주로 이런 형성 문제에 관해 연구되어 왔다. 본고 역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선은 그 형성 문제와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고에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모본으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보는 이들 일군의 작품들을 편의상 ‘이공본풀이계 서사물’이라고 하고 논지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것은 논술의 편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이러한 무속신화가 모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될 것이다.

이공본풀이계 서사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중 중요한 결과로는, 1) 제주도 무속제의에서 불리우는 이공본풀이와 평북 강계지역에서 불리우는 무가 중 ‘신선세턴님청배’는 내용상 유사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월인석보에 실린 안락국태자경이 설화화·소설화되면서 무가속에 수용된 것이라는 것과⁴⁾ 2) 안락국태자경 같은 미타삼존의 본생담은 대장경보(大藏經譜)에 들어 있지 않은 위찬경(偉撰經)에 틀림 없다는 것(사재동 1984b : 331) 등이 있다. 이공본풀이가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라 한다면 이것의 형성은 그 시기를 아무리 빨리 잡아도 15세기, 또는 조선 중기를 올라서지 못한다. 석보상절의

4) 서대석(1968)이 이런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공본풀이가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되었다는 학설은 계속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장덕순 외 1971 : 133, 사재동 1984a : 40-41, 장주근 1986 : 368-371, 강정식 1988 : 312, 김선풍 1993 : 240).

형성이 조선 세조 4년인 1459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⁵⁾ 그리고 안락국태자경 이야기가 불경원전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이 소재는 어쩌면 우리 고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것은 이공본풀이계 서사물 중의 하나인 ‘이공본풀이’가 신화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앞선 연구 중 무속신화 이공본풀이가 석보상절에 나오는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에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즉 무속신화 이공본풀이가 먼저이고 이것이 모태가 되어 안락국태자경 같은 것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1) 제주도 큰굿을 연구해 본 결과(이수자 1989, 1990), 이공본풀이는 고대에 무속제의를 위해 창조된 무속고유의 신화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의 형성시기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대의 제의시대 또는 신화시대라고 볼 수 있어서 안락국태자경보다 그 시기가 앞서는 것이다. 2) 신화란 전설·민담·소설 등을 이루는 모태가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학설을 중시하기 때문이다.⁶⁾ 이공본풀이를 무속제의를 위해 창조된 무속고유의 신화로 본다면, 이것은 무속제전을 벗어나 전설, 민담, 소설 등으로 바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단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나 큰굿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검토하여 이것이 정말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5) 안락국태자경은 월인석보에 수록되어 있는데,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합편하여 세조4년인 1459년에 만들어졌다. 석보상절은 세종 29년인 1447년에 간행된 것이고, 월인천강지곡은 세종29년이나 늦어도 동왕31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공본풀이가 월인석보에 실린 안락국태자경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 한다면, 이것의 형성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15세기 중반을 넘지 못한다.

6) Lord Raglan(1958 : 122-35)은 W. J. Gruffydd의 학설을 빌어 신화는 나중에 전설이나 민담 또는 문학적인 이야기들로 바뀐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열규 1971 : 6-10, 조동일 1978 : 87 참조).

그런데 본고에서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위상을 고찰하여, 이것이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한 것이 아니고 무속고유의 신화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사실 다음과 같은 사정도 있다. 제주도 큰굿을 연구해보면 이것은 원래 열두거리로 이루어졌었던 종합적인 제의였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고대성을 참조하면, 이러한 큰굿 및 여기에 나오는 신화들은 우리 민족의 고대적 제의였던 무속제 의와 여기에서 분리되었던 신화들이 제주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공본풀이는 이중 네번째 거리인 이공맞이제에서 불렸던 신화로서, 내용상 큰굿내에 나오는 신화들과 유기적인 상관성을 맺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만약 이공본풀이의 형성을 안락국태자경의 수용과 관련하여 이해하면, 제주도의 큰굿 및 여기에 나오는 신화들의 형성시기도 조선시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제주도 큰굿이 고행이라고 하는 논리도 성립될 수 없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바 천지왕본풀이나 생불할망본풀이, 농경기원 신화 같은 것도 그 형성시기를 15C 이후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신화들의 형성을 이 시기로 본다는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공본풀이가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한 것이라 한다면, 이들은 순수한 신화도 될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제주도의 큰굿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이것은 우리 문화의 근원을 밝혀줄 수 있는 모태가 된다고 본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고대적 제의인 무속제 의의 본질을 밝혀주고, 나아가서는 우리 문화의 근원을 밝혀 줄 수 있는 학문적 보고다. 그런데 이들이 조선시대인 15C에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여기에서 이공본풀이가 정말로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된 단순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이것은 원래 무속고유의 신화였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공본풀이는 무속제 의에서 무속에서 모시는 신들을 제의하기 위해 창조된 무속고유의 신화이다. 그런데 이공본풀이가 석보상절속의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제주도 무속

제의에서 이 신화가 차지하는 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에는 제주도 무속제의에서 이공신, 이공맞이제, 또는 이공본풀이가 차지하는 위상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서, 이것이 무속제의상의 필요를 위해 창안된 무속고유의 신화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이렇게 보면 이공본풀이가 석보상절속의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것이 모태가 되어 안락국태자경 같은 것이 형성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주도 큰곳의 구조와 여기에 속해 있는 신화들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학위논문(이수자 1989)을 통해 자세히 검토한 바가 있다. 따라서 논지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되도록 이 결과를 활용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공본풀이가 구송되는 제의인 '이공맞이제'의 제의적 성격을 살펴 보면서, 여기에서 이공본풀이가 어떤 신화적 의미를 갖고 있나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어서는 제주도 큰곳속에서 이공신, 이공맞이제, 이공본풀이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것은 신화의 명칭, 제의언어, 큰곳 전체의 구조, 그리고 서천꽃밭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이공본풀이가 무속제의에서 창조되었던 고유의 신화라 한다면, 이것은 본토의 무속제의에서도 구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에는 본토에 남아 있는 이러한 흔적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모든 사실을 근거로 이공본풀이가 무속제의속에서 형성된 무속고유의 신화였음을 밝혀 보기로 한다.

II. 이공맞이제의 제의적 성격과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제주도의 무속이 상당히 고품의 문화물일 것이라는 것이 선학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그런데 제주도의 큰굿을 연구해 보면, 이것은 매우 타당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주도의 큰굿은 실제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고태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은 제주도의 큰굿이 원형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전승되어 오면서 이것은 많은 변모와 변화를 거듭한 것이어서 현존하는 제주도의 무속은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교적 고품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공본풀이는 현재 제주도에 행해지고 있는 무속제의 속에서 신화로서 구송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큰굿 중 '불도맞이제'나 '이공본풀이제차'에서 구송되기도 하지만, 불도맞이제는 아기의 잉태나 안전 성장을 위해 단독으로도 행해지는 만큼 단독제인 불도맞이에서도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⁷⁾ 그런데 '이공본풀이'라는 신화의 명칭을 보면, 이것은 곧 '이공'이라는 신의 근본을 풀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이공본풀이는 원래 '이공'이라는 신에 대한 제의에서 신의 강령을 기원하기 위하여 창조된 신화라고 추정할 수 있다. 우리가 편의상 이와같이 이공본풀이가 불렸었던 제의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이 제의를 '이공맞이제'라 하기로 한다면, 현재 행해지는 제의 중 '이공본풀이제차'는 바로 이와 같은 제의가 원래 큰굿내에 있었던 흔적을

7) 현용준(1980)을 참조하면, 현행되고 있는 제주도 큰굿은 31제차인데, 이공본풀이는 이 중 12번째 제차로 행해지고, 이공맞이는 13번째로 행해진다. 그런데 이 중 12번째인 이공본풀이제에서는 이공본풀이 신화가 구송되고 있지만, 13번째인 이공맞이에서는 이것이 구송되지 않는다. 이공본풀이 신화는 또 8번째 제차인 불도맞이 중 '수레멜망악심질침'이란 곳에서도 구송되고 있다.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불도맞이제에서 이공본풀이가 불리우는 현상은 약간 변모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

이공본풀이가 무속고유의 신화인가, 아니면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된 신화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신화가 불리워졌던 이공맞이제의 제의적 성격이나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 현재 무속제외에 남아 있는 바 ‘이공’이라는 신의 명칭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그 위상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큰곳에 나오는 것으로서 이공신과 관련된 내용에는, 신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젯드리앉혀살려움’의 내용이 있고, 신화 ‘이공본풀이’와 이공맞이제의 놀이라 할 수 있는 ‘악심꽃겨움’ 등이 있다. 다음에는 이들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보면서 이공맞이제의 제의적 성격과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순서는 신화, 놀이, 그리고 젯드리앉혀살려움의 순으로 한다.

1.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내용

이공본풀이 신화는 제주도 무가가 채록되어 있는 자료집에는 거의 대부분 실려 있다. 이들은 일본인이 채록한 『朝鮮巫俗の研究』上(1937), 필사본 자료집인 『풍속무음』(1929-1945)과 『제주무가집』(1963), 그리

8) 이공본풀이 신화 및 이 신화와 관련된 놀이인 ‘악심꽃겨움’이 불도맞이제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꽃화소’가 공통하기 때문이다. 불도맞이는 인간을 산육(産育)시키는 불도신 생불할망을 맞이하여 행하는 제의인데, 여기에서 불리우는 생불할망본풀이에는 중요한 요소로 ‘생불꽃’이라는 것이 나온다. 아기를 잉태시키는 꽃인 생불꽃 역시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공본풀이나 생불할망본풀이에 다같이 ‘생명꽃’이 나오기 때문에 이공본풀이는 자연스럽게 불도맞이에서 수용되어 구송되고 있는 것이다. 악심꽃겨움이라는 놀이가 행해지게 된 것도 역시 이와 같다. 여기에 관한 것은 이미 필자의 학위논문(이수자 1989 : 117-127)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혔다.

고 진성기의 『남국의 무가』(1968), 장주근의 『韓國의民間信仰』 자료편(1973),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1980), 진성기의 『제주도무가 본풀이사전』(1991) 등이 대표적인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이야기 줄거리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어서 어떤 자료를 택하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공의 이름 중 나중에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되는 남편의 이름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것을 원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연전에 학위논문을 통해 그것이 사라도령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바가 있기 때문에(이수자 1989:33-35) 이 이름을 중시하고 자 한다. 내용은 주로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1980: 121-131)의 것을 따르기로 한다.⁹⁾

*이것은 옛날 옛적 장자네집 삼당과 외당의 씨를 멸족시키던 수레 멧망약심꽃의 본초, 또는 본산국을 설명하는 것이라 하면서 시작한다.

① 아랫마을과 윗마을에 사는 김진국과 임진국은 자식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절에 다 원불수룩(아이 낳기를 기원하는 제의)을 드리고, 김진국네는 아들을 임진국네는 딸을 낳아 이름을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라 짓고 구덕혼사를 맺는다.

② 사라도령과 원강아미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둘은 결혼을 한다.

③ 남편인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으로 꽃감관을 살러 가게 되자 부부가 함께 길을 떠난다.

④ 원강아미가 잉태한 몸이라 힘이 들어 더이상 가지 못하게 되자 장자집에 종으로 팔려 남기를 자청한다. 그래서 낳을 아이의 이름을 짓고 신물(본메)을 나누어 가진 다음 부부가 헤어진다.

⑤ 원강아미는 탐욕한 장자를 지혜로 물리치고 아들을 낳아 남편과 약속한 대로 신산만산할라꿈이라 이름짓는다.

⑥ 할라꿈이는 열다섯 살이 되자 아버지가 있는 곳을 묻고 서천꽃

9)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에 대해서는 강정식(1988: 272-3)에도 자세히 검토되어 있다.

발을 가려고 불래 집을 떠난다. 자신을 쫓아오는 장자집 개를 세덩이의 모밀범벅을 이용해 물리치고, 큰물을 지난 후 서천꽃밭에 도착하여 아버지를 만난다.

⑦ 장자는 화가 나서 원강아미를 죽여 토막을 내어 들에 버린다.

⑧ 사라도령은 할라궁이에게 어머니가 장자에 의해 죽임을 당했음을 알려 주고, 서천꽃밭에 피어 있는 웃음웃을꽃과 싸움싸울꽃, 악심꽃, 환생꽃 등을 주면서 장자의 가족을 죽여 원수를 갚고 어머니를 살려 오도록 한다.

⑨ 장자집에 도착한 할라궁이는 그 친족들을 모으게 하고 <웃음웃을꽃>으로 모두를 웃게 한 다음 <싸움싸울꽃>으로 서로 싸우게 하고, <수레멜망악심꽃>으로 장자네 일족을 전부 죽인다. 그리고 어머니의 시신을 찾아내서는 <환생꽃>을 이용하여 어머니를 환생시켜 함께 서천꽃밭으로 돌아간다.

** 그 때에 어머니를 죽여 청대밭과 흑대밭에 버린 법으로 온갖 사기(邪氣)와 열두풍운조화를 주는 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어서 그 때 낸 법으로 청대 한줌과 청새(띠) 한줌을 들어 <수레멜망악심꽃>이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중 *와 **부분은 이것이 제의에서 불러우고 있는 신화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부분을 통해서 이 신화가 특히 ‘수레멜망악심꽃’이라는 꽃의 근본을 풀어주기 위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분은 이 세상에 온갖 사악한 기(氣)와 열두가지 풍운조화가 생겨난 유래가 바로 장자가 원강아미를 죽여 청대밭과 흑대밭에 버렸기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사기와 풍운조화가 있게 된 연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죄없는 원강아미를 죽인 사악한 장자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부분은 또 청대 한줌과 청새 한줌을 가리켜 수레멜망악심꽃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를 설명하고, 그 기원은 바로 신화내에 나오는 바 장자가 원강아미를 죽여 청대밭과 청새밭에 버렸던 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분에서 인간 세상에 악한 기운과 열두풍운이 생기게 된 것과

청대 한줌과 청새 한줌을 가리켜 수레멜망악심꽃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가 모두 신화에 나오는 바 죄없는 원강아미를 죽인 탐욕한 장자의 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화가 가지는 바 ~의 기원을 설명하는 본질이 있는 것이기에 나타난 것이다. 신화란 항시 원고(原古)의 시대에 일어났던 신의 일에 기원하여 현존하는 이 세계와 우리 인간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례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그 기원을 설명하는 본질이 있는 것이다(왕빈 1980 : 17-22). 이상과 같이 보면, 무속신화 이공본풀이는 특히 수레멜망악심꽃이라는 꽃이 중시되면서, 어떻게 하여 이 세상에 악한 기운이 생기게 되었나와 왜 청대와 청새 한줌을 수레멜망악심꽃이라고 부르게 되었나 하는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창조되고 설정된 신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뒤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이 세상의 악한 기운과 열두 풍운조화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의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곧 인간이 죽게 된 기원과 제의에서 청대와 청새 한줌이 수레멜망악심꽃을 상징하게 된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라 할 수 있다. ‘수레멜망악심꽃’에서 수레의 의미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멜망악심은 악심(惡心), 즉 나쁜 마음을 멸망시킨다는 뜻이다. 즉 이것은 나쁜 마음을 없애준다는 뜻인데, 할라꿈이가 이 꽃을 가지고 장자네 일족을 죽인 것은 장자가 나쁜 마음(악심)을 가진 악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2. 이공놀이 <악심꽃격음>의 성격

‘악심꽃격음’(현용준 1980 : 131-134)¹⁰⁾ 현재 불도맞이제에서 행해지는 놀이적성격을 갖고 있지만, ‘악심꽃격음’이라는 명칭이나 그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원래 이공신을 맞이하여 행해졌던 제의에서 놀

10) 이것 역시 서천꽃밭과 생명꽃적인 요소 때문에 불도맞이에 수용되었다 할 수 있다.

아졌던 놀이였을 가능성이 있다. ‘악심꽃꺼짐’이란 이공본풀이에 나오는 ‘수레멜망악심꽃’과 관련된 이름이다. 그리고 이것은 극적(劇的)으로 행해지고 있기에 이공맞이제에서 행해졌던 놀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악심꽃꺼짐은 변장한 무녀가 서천꽃밭으로 가서 수레멜망악심꽃을 가져온 후 그것을 꺾어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이 꽃을 계속 꺾어 버리려고 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때 의미가 드러난다.

“악심꽃을 다 잡았더니 머릴 죽이민 꼬리가 살꼭, 꼬릴 죽이민 머리가 사는구나. 이 꽃을 어찌하리 오독독이 거꺼맞자. [요 꽃이 들엄 이 간 주당 고조부도 양우친 징조부도 양우친 이알로 삼사촌 면에권당까지 거꺼가던 꽃이로구나]……(하략).”(『제주도무속자료사전』, p. 133)

[]부분의 내용을 참고하면 악심꽃은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거꺼간 꽃이었다. 거꺼간다는 것은 곧 생명을 꺾었다는 뜻으로 이것은 곧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것이다. 사람의 죽음을 꺾는다고 표현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식물체계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무속신화들은 사람의 생명체계를 식물체계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이 많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솟아난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상황을 보여 준다. 악심꽃은 사람의 생명을 죽게 하는 꽃이기에 무녀는 이 꽃을 꺾어버리자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 살도록 기원해 주는 것이다. 악심꽃은 바로 수레멜망악심꽃이다. 이공본풀이 신화를 참조하면, 이것은 장자네 일족을 죽게 만들었던 꽃이다. 그런데 놀이 내용을 참조하면 이것은 인간을 죽게 만든 꽃으로 전이되어 있는 것이다.

3. <젯드리얏혀살려움>에 나타난 이공신의 성격

‘젯드리얏혀살려움’이란 큰굿의 시작 부분인 초감제에서 행해지는 작은 의례로, 제의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로 하강한 신들을, 제의가 행해지는 자리에 순서대로 앉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공맞이 제 보다 훨씬 앞서서 행해지는 의례에서 언급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공신의 성격을 종합하는데 긴요하기에 뒤에서 다루는 것이다.

젯드리얏혀살려움은 신의 위계에 따라 신들을 제청에 차례로 앉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큰굿에서 모셔지는 신들이 전체적으로 언급되는데, 신들의 이름과 직능이 함께 설명된다. 때문에 큰굿에서 모시는 신들의 종류 및 성격, 기능, 직능 등을 전체적으로 알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이공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공 서천도산국, 집진국도 상시당 원진국도 상시당, 원강아미, 원강도형, 황세곤간 도세곤간 꽃감관 꽃생인 살려옵서. 이공은 꽃뿌리가 돼웁네다. 탁상우전 살려옵서. 안이공은 몸받은 신통시로 살려옵서. 밧이공은 탁상전으로 살려옵서.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 63)

여기에는 이공본풀이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의 이름이 죽 열거되고 있는데, 이공신의 직능은 ‘꽃뿌리’라 하고 있다. 꽃뿌리란 바로 꽃의 근본이란 뜻이다. 이공본풀이 신화에 보면, 이공신들은 서천꽃밭에서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생불꽃, 수레멜막약심꽃, 환생꽃 등을 관장하는 신이었다. 이렇게 보면 젯드리얏혀살려움과 이공본풀이에 나오는 내용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공신이란 바로 서천꽃밭에서 여러가지 생명꽃들을 관장하는 신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4. <이공맞이제>의 제의적 성격

젯두리앓혀살려움과 이공본풀이, 그리고 악심꽃꺼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공신은 바로 서천꽃밭에서 여러가지 생명꽃을 관장하는 신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공맞이제란 바로 이런 주화(呪花) 관장신을 맞이 하여 행해졌던 제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놀이였다고 생각되는 ‘악심꽃꺼음’을 통해 보면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오래 살 수 있도록 기원했던 제의였다고 단정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조절할 수 있는 주화들이 피어 있는 곳으로 ‘서천꽃밭’ 같은 곳이 따로 있다고 상정한 것이나 또는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꽃들이 여기에 따로 있다고 하는 것에는,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속, 또는 여기에서 구송되고 있는 신화를 형성한 집단이 가진 바의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의경과 의구심이 얼마나 강했었나를 알 수 있다.

5.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본고의 주요 논지는 이공본풀이라는 신화의 본질과 위상을 규명하여, 이것이 무속적 제의를 위해 무속내에서 창조된 무속 고유의 신화인가, 아니면 석보상절에 나오는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후대에 형성된 것인가를 밝히는데 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무속고유의 신화라 한다면 이공본풀이는 무엇을 위해 무속에서 창조된 신화인가? 그리고 이 신화가 가진 이른바 신화의 원초적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해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에는 앞서 살펴 본 사실들을 토대로 이공본풀이 신화의 원초적 의미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공본풀이는 ‘수레멜망악심꽃’이라는 꽃의 근본 내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신화로서 이 꽃은 바로 장자네 일족을 죽였던 죽음의 꽃이었다. 그런데 놀이인 <악심꽃꺼음>의 내용을 보면 이 꽃은 바로 우리들 인간을 잡아 가는 꽃, 즉 죽게 하는 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다. 이공본풀이에서 탐욕한 장자를 죽였던 꽃이 곧 우리 인간을 죽이는 꽃으로 전이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는, 이공본풀이에 나오는 바 수레멜망악심꽃과 관련된 사건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실, 즉 죽게 된 사실을 기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이공본풀이라는 신화가 우리 인간의 죽음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창조되었던 신화라는 것을 알게 한다. 신화란 항시 원고(原古)의 시대에 일어났던 신의 일에 기원하여 현존하는 이 세계와 우리 인간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례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그 기원을 설명하는 본질이 있는 것인데, 이공본풀이는 우리 인간이 죽게 된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신화내에 죽음에 관한 일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우리들 인간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된 사실을 해명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우리들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원고(原古)의 시대에 탐욕한 장자라는 신이 있어 그가 죄없는 원강아미를 죽였던 일 때문에 비롯되었다. 이공본풀이 속의 장자는 잉태한 남의 부인을 탐내고 그를 겁간하려 했으며, 아들이 도망갔다고 하여 그 어미를 죽여 토막을 내서 버리기도 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그가 이와같은 악심(惡心)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꽃이름이 ‘수레멜망악심꽃’인 것도 이 꽃이 이런 악심을 없앤 꽃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에 기원하여 인간이 죽게 된 기원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것에는 인간 역시 악심을 가진 존재로 보았다는 논리가 내재해 있다.¹¹⁾ 악심꽃이 곧 인

11) 인간이 사는 이 세계가 악한 곳이라는 것은 제주도 무속신화 중 천지왕본풀이에도 나타난다. 쌍둥이 형제신인 대별왕과 소별왕은 돌씩 되었던 해와 달을 각각 하나씩으로 조정하고, 이어서 이승과 저승차지 시험을 벌인다. 수수께끼시험을 해서 이긴 자가 이승을 차지하기로 하는데, 여기에서 진 동생 소별왕은 다시 꽃피우기 시험을 제의한다. 여기에서도 지게 되자 동생은 거짓 속임수를 써 이승을 차지하는데, 이 때 형인 대별왕은 저승으로 가며 ‘거짓으로 이승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승에는 간음, 역적 등 죄가 가득차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것은 인간이 사는 이 세계를 악한 곳이 많은 것으로 보는 인식이 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곧 인간 그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것과 맥이 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간을 지칭하는 꽃이 되었다고 하는 데에도 인간을 악심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내재해 있다.

심방이 이공본풀이 신화를 구송할 때 특히 수레멜망악심꽃을 강조 하여 이 꽃의 본산국을 풀겠다고 하면서 신화 구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기원적으로 볼 때 원래는 이 꽃이 가진 바의 기능이 이처럼 중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신화 내용만을 중시하면 이 신화가 가진 이런 신화적·원초적 의미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악심꽃은 인간의 죽음이 시작된 연유를 설명하는 꽃이다. 죽음이란 항상 무서운 공포이며, 사악한 것이고, 어두운 것이다. 이공본풀이 구송의 마지막에 수레멜망악심꽃이 인간세상에 악한 기운과 열두 풍운조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이 꽃이 바로 인간을 죽게 한 꽃이기에 나타났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공본풀이는 인간이 죽게 된 사실을 기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신화이다. 이것은 인간이 죽게 된 원론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기원신화이지, 현존하는 모든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는 이른 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신화는 아니다. 제주도 큰굿내에는 죽음 및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신 및 이들에 관한 신화가 따로 있다. 이공본풀이가 중시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이 신화가 우리 인간들의 죽음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라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신화 내용에서는 (수레멜망)악심꽃이 중요한 만큼 이들 생명꽃이 피어 있는 '서천꽃밭'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화는 흔히 제의와 상관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는데, 이공본풀이는 실제로 제주도 큰굿속에서 제의와 관련되어 살아 있는 신화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신화의 형성은 제주도 큰굿이라는 무속 제의와 관련하여 그 전체속의 일부로 고찰해야 한다. 무속신화 이공본풀이는 인간의 '죽음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화가 무속내적 요소로서 창조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인간 '생의 문제'와 대응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창조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밝혀질 때 보다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제주도 큰굿과 ‘이공본풀이’의 위상

앞에서는 무속신화 이공본풀이가 불리우는 개별제의를 중심으로, 이러한 제의가 가진 제의적 의미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를 살펴 보았다. 다음에는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큰굿 전체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이공본풀이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공본풀이가 무속고유의 신화인지 아니면,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한 것인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큰굿속에 나타나는 이공본풀이의 위상은 1) 이공본풀이라는 신화의 명칭을 중심으로 2) 일반적인 제의언어 속에 나타나는 이공신에 대한 언급 상황, 3) 열두거리 큰굿의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4) 큰굿내의 신화에 나타나는 서천꽃밭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 보도록 한다.

1. 신화의 명칭을 통해서 본 이공본풀이의 위상

큰굿 내에서 불리우고 있는 신화 중, 특히 명칭상 이공본풀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신화는 초공본풀이라는 신화와 삼공본풀이라는 신화다.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를 함께 놓고 보면, 이들의 명칭에는 초·이·삼이라는 어떤 숫자상의 연계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초공, 이공, 삼공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초, 이, 삼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공’자는 존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신화들은 원래는 제의상 어떤 연계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현행되고 있는 제의체계에서는 이런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필자의 학위논문(이수자 1989)에서 밝힌 바 있고, 또 뒤의 III-3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큰굿의 구조를 재구해 보면 이들은 아주 놀라울게도 원래 굿거리의 순서상, 즉 제의의 순서상 나란히 연

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큰굿 열두거리 중 초공본풀이가 불리우는 초공맞이제는 세번째로, 이공본풀이가 불리는 이공맞이제는 네번째, 그리고 삼공본풀이가 불리는 삼공맞이제는 다섯번째로 행해졌던 것이었다. 신화상의 명칭만을 볼 때도 이들은 어떤 연계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는데, 재구해 본 바 제의상의 순서도 이처럼 일치하는 현상은 이들이 원래 이처럼 존재했거나 아니면 제의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공본풀이는 신화의 명칭상 큰굿내의 신화들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굿의 전체속에서 그 위상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공본풀이가 만약에 후대에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신화들의 명칭은 이렇게 나란히 나타날 수 없고, 또 큰굿의 제의체계도 이처럼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 초공본풀이는 무조신(巫祖神)에 관한 신화이고, 삼공본풀이는 우리의 전상, 즉 운명 등을 다스리는 신에 관한 신화인데, 이 중 초공본풀이 같은 것은 조선시대에 형성되기 어려운 신화이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하면, 이공본풀이가 조선시대에 형성되어 신화 이름이 정해지고, 이후에 초공신이나 삼공신 같은 것이 나타났으며, 또 초공본풀이와 삼공본풀이 같은 신화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는 원래 큰굿이 형성될 당시 만들어진 신화이고, 제의의 구성상의 연속성 때문에 그 명칭이 순서대로 초공·이공·삼공본풀이로 정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공본풀이의 형성은 큰굿의 형성 시기와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2. 제의언어속에 나오는 이공신의 위상

이공본풀이는 ‘이공신’에 대한 본풀이이기에, 이공신에 관한 내용도 이공본풀이의 위상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다음에는 큰굿 내에는 이공신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큰굿은 흔히 ‘초감제’라 하는 의례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제의에서 모시는 신들을 종합적으로 맞이하는 신맞이 의식이다. 초감제는 처음에 이 세상이 마련되는 사실부터 설명하기 시작하여(배포도업침), 제의가 행해지는 시간과 장소를 말하고(날과국섬김), 제의를 행하는 이유를 설명(집안연유담음)한 다음, 신들로 하여금 지상의 제의되는 곳에 강림할 수 있도록 신들이 살고 있는 궁궐의 문을 열어 준 후(군문열음), 신들이 하강할 장소를 깨끗이 청소를 하면서(새드림), 제의되는 곳으로 신들을 모셔와 제청에 차례대로 앉힌 후(젯드리앉혀살려음), 신들이 제의되는 곳에 잘 강림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중 신들이 살고 있는 궁궐의 문을 열어 주는 ‘군문열음’과 신들이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청소를 하는 ‘새드림’, 그리고 신들을 차례로 자리에 앉게 하는 ‘젯드리앉혀살려음’에서는 큰굿에서 모시는 신들이 총망라되어 언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참조하면 큰굿에서 모셔지는 신들의 종류와 직능 및 성격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공신의 이름이 다른 여타의 신들과 함께 계속하여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 중 새드림과 젯드리앉혀살려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신들의 종류를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의거하여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① 새드림 : 천왕/초공/이공/삼공/시왕/세경/문전

② 젯드리앉혀살려음 : 천지왕 · 땅차지신 · 산신 등/불도신/초공신/이공신/삼공신/시왕 · 저승차사/멩감/세경신/일월신/성주신/본향신/칠성신/조왕 및 오방토신 등

이상에서 언급되는 신들의 직능이나 성격은 III-3에서 설명될 것이기에 여기에서 이것을 살펴 보는 일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큰굿의 시작 부분에서 행해지는 의식속에 여타의 신들과 함께 이공신의 명칭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공신이 여기에 나

오는 여타의 신들과 유기적인 상관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공신이 큰굿 전체의 의식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도 있다. 이와같은 상황을 중시하면, 이공신, 이공본풀이, 이공맞이제는 큰굿속에서 다른 신들과 신화, 그리고 제의와 긴밀하게 접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공본풀이의 형성 역시 제주도의 큰굿, 또는 여기에 나오는 신화들의 형성과 그 시대를 같이하여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3. 제주도 큰굿의 구조적 원형을 통해서 본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위상

현행되고 있는 제주도 큰굿은 31개의 제차로 구성되어 있다(현용준 1980).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여기에는 어떤 구조적인 체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제의 또는 의례는 어떤 체계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큰굿이 보여주는 이러한 상황은 이것이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오면서 여기에 변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시사한다. 때문에 우리는 제주도의 큰굿이나 여기에 나오는 신화의 문화사적 의의나 위상을 살피고자 할 때, 현행되고 있는 현상만을 중시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이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이에 필자는 학위논문을 통해 이것을 새롭게 재구하여 그 성격을 논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무속이 매우 고풍의 문화물임을 강조한 바 있는데(이수자 1989), 여기서도 그 결과를 요약하여 설명하면서 큰굿의 전체구조 속에서 이공본풀이가 차지했던 위상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필자는 무속제의를 1) 구전되어 오는 바에 따라 열두거리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과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에 위계질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제의의 순서도 이러한 위계순에 따라 행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점, 그리고 3) 신화란 제의되는 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큰굿에서 제의되는 신들은 반드시 구송되는 신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계순에 따른 신의 명칭에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신화를 대입하여 큰곳의 구조를 재구하였다. 결과는 역시 짐작했던 대로 열두거리가 추출되었는데,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추출된 큰곳의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① 천지왕(←천지왕본풀이) ② 생불신(←생불할망본풀이) ③ 초공신(←초공본풀이) ④ 이공신(←이공본풀이) ⑤ 삼공신(←삼공본풀이) ⑥ 시왕 및 차사(←강림차사본풀이) ⑦ 멩감신(←멩감본풀이) ⑧ 세경신(←세경본풀이) ⑨ 칠성신(←칠성본풀이) ⑩ 문전신(←문전본풀이) ⑪ 본향신(←본향본풀이) ⑫ 조상신(←조상본풀이)

다음에는 이상과 같이 하여 재구된 제주도 큰곳을 중심으로 열두거리의 제의적 성격과 구조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 보면서, 여기에서 이공맞이제 및 이공본풀이가 어떤 위상을 차지했나를 살펴 보기로 한다.

① 처음으로 행해지는 초감제는 종합적인 신맛이 의식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이 처음 마련될 때 질서를 잡아 주고 인간사회의 문화를 마련해 준 창세신들의 공업을 찬양하기도 한다. 시작 부분에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기원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를 ‘베포도업침’이라 한다. 이 속에서 구송되는 무속신화 천지왕본풀이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두개씩 있던 해와 달을 하나씩으로 조정하고 이승과 저승 차지시합을 벌인다는 것이다. ② 아기를 점지·잉태·탄생시키고 양육시켜 주는 불도신 생불할망에 관한 제의다(불도맞이제). ③ 무조신(巫祖神)인 초공신에 대한 제의다(초공맞이제). ④ 서천꽃밭에서 주화인 생명꽃을 지키며 살고 있는 이공신에 대한 제의이다(이공맞이제). ⑤ 전상신인 삼공신에 대한 제의인데, 전상신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한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운명이나 팔자 속에서 살도록 주관하는 신이다(삼공맞이제). ⑥ 사후의 세계인 저승에 있는 신들과 죽은 자를

저승까지 데리고 가는 저승차사를 모시고 행하는 제의이다. 저승에는 열네명의 시왕과 한명의 판관이 있다고 생각했고, 사자는 이곳에 있는 열지옥을 돌며 이 세상에 살 때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최후로 심판관 앞에서 이승에 환생을 할지 아니면 저승에서 영원히 살지를 심판받는다. 시왕맞이제라 할 수 있는데, 이 제의의 앞부분에서는 저승의 상황이 자세하게 설명된다. ⑦ 사만년 혹은 삼천년을 살았던 장수신(長壽神)에 대한 제의다(뽕감맞이제). ⑧ 우리에게 오곡의 종자와 메밀씨를 가져다 주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 했던 농경기원신인 세경신에 대한 제의이다. 여기서는 목축신도 함께 제의가 된다(세경맞이제). ⑨ 농사의 풍년을 가져다 주는 풍농신인 뱀에 대한 제의다(칠성맞이제). ⑩ 집이나 성과 같이 인간이 몸담아 살고 있는 가옥의 각 곳을 지켜주는 신에 대한 제의다(성주맞이제). ⑪ 마을과 같이 인간들이 몸담아 살고 있는 일정한 공간이나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에 대한 제의다(분향맞이제). ⑫ 한집단의 조상신이나 수호신을 모시고 행하는 제의다(조상맞이제). 큰굿은 이상과 같이 열두개의 제의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개별제의가 끝나면 마지막에는 큰굿에 모셔졌던 신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 보내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상과 같은 큰굿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큰굿형성집단은 우리 인간이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나 하는데 관심을 갖고, 초감제 중 베포도업침이란 신화를 통해 이것을 해명한 이 후[①] 이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관심갖고 생불신을 상정하여 이것을 해명했다[②]. 인간 세상이 마련되었으므로 이제는 이것을 관장하는 법질서가 필요하다. 이것을 마련한 것이 초공신이고[③], 이어서는 죽음의 문제를 관심갖고 이것을 해명했다[④]. 생불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공신, 운명신에 관한 것이라든가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신, 그리고 장수신에 관한 제의들은 모두 인간 삶의 존재론적 차원인 생/사/사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한 것이다 [②-⑦].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시하여 행해졌던 제의가 [⑧-

⑨]이고, 살고 있는 주거공간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이 [⑩-⑪]이다. 그리고 집단의 조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행하는 것이 마지막인 12번째의 제의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큰굿은 우주창생에 대한 관심에 이어 인간 삶의 존재론적 차원에 대한 관심, 식문제에 대한 관심, 주거문제, 혈통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순서대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이것이 상당히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공신에 대한 제의는 이 중 네번째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 제의는 인간 삶의 존재론적 차원을 담당하는 신에 대한 제의 중에는 두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앞에는 바로 생을 담당하는 신(불도신=생불신)에 대한 제의가 나오고 있다. 생불할망본풀이는 인간 삶의 생성요인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반면에 이공본풀이는 인간이 죽게 된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생불신에 대한 제의와 이공신에 대한 제의가 초공신에 대한 제의를 격하여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은, 인간 삶의 생/사에 대한 관심을 연이어 표명하고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공신에 대한 제의 및 신화 이공본풀이는 이처럼 생/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생불신에 대한 제의 또는 생불할망본풀이에 대응되는 것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공신에 대한 제의 및 신화 이공본풀이는 큰굿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공본풀이는 큰굿 전체와 관련지어 전체속의 일부분으로서 그 본질이나 위상, 형성시기를 이해해야 한다. 큰굿내에는 농경기원신에 대한 제의가 있고, 뱀이 풍농신으로 관념되어 함께 제의되고도 있다. 이런 것은 후대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공신에 대한 제의를 위해 창조된 이공본풀이의 형성도 그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이공본풀이가 만약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라 한다면, 이 신화가 형성된 후 큰굿의 구조가 이처럼 짜여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신화가 구송되는 이공맞이제 다음에 농경기원신이나 풍농신

인 뱀에 관한 제의가 나타날 수도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큰굿은 매우 오랜 고형의 문화물로서, 이것은 우리민족의 고대적 제의인 열두거리 큰굿이 섬지방인 제주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공본풀이는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무속의 형성시 창조된 무속고유의 신화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서천꽃밭을 통해서 본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위상

이공본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신화소는 바로 ‘서천꽃밭’과 ‘생명꽃’이다. 남편인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을 지켜야 할 꽃감관으로 뽑히면서 서사가 진행되고, 이 일로 하여 부부가 헤어지게 되었으며, 아들 할라공이가 아버지를 찾아 이곳으로 떠났기 때문에 원강아미도 죽게 되었다. 그리고 장자네 가족을 징치하고 어머니를 살려 낸 꽃도 여기에서 가져온 것이며, 결국 이곳은 가족 모두가 다시 만나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서천꽃밭은 이공본풀이의 서사진행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이 신화에 나오는 모든 존재가 지향하는 원초적이고 중심적인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천꽃밭은 또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주화인 생명꽃이 피어 있는 곳으로서도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중 특히 중요한 것은 수레멜망약심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고찰한 바 있다.

서천꽃밭과 여기에 피어 있는 주화로서의 생명꽃은 이공본풀이가 신화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빼고는 이 신화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화로서의 생명꽃이나 이것이 피어 있는 꽃밭으로서의 서천꽃밭은 이공본풀이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살펴 본 바 제주도 큰굿을 이루는 열두거리 제의에 나오는 여러 신화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이공본풀이가 큰굿

내에 나오는 신화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이 신화의 형성이나 위상이 이들 신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따라서 다음에는 큰곳에서 구송되는 신화 중 이와 같은 꽃화소나 서천꽃밭이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여러 신화에 나오는 ‘꽃화소’와 ‘서천꽃밭’의 양상

〈천지왕본풀이〉에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두개씩 있던 해와 달을 오늘날처럼 하나씩으로 만든 후에 이승과 저승차지 시합을 벌일 때 ‘꽃피우기 시합’을 하여 이긴 자가 이승을 차지하기로 한다. 〈생불할망본풀이〉에서는 산육신이 되는 맹진국따님애기와 나중에 아기의 질병신이 되는 구삼승할망이 서로 생불신이 되려고 할 때 꽃피우기 시합을 벌여 결정한다. 여기에서 이긴 생불신은 하늘에서 꽃씨를 받아다 그 씨를 뿌려 서천꽃밭을 만들고 여기에 핀 꽃 중 ‘생불꽃’을 따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를 점지·잉태시키는데, 색깔과 방향에 따라 아이의 성별과 일생 삶의 양상이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이 중 생불꽃이 바로 생명을 잉태시키는 꽃이라는 점이다. 서천꽃밭에 부엉이가 날아들어 꽃을 망치자 생불신은 하늘에 이 꽃밭을 지킬 신을 보내주기를 원한다. 여기에 사라도령이 뿔히게 되면서 〈이공본풀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공본풀이는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독립된 신화라기 보다는 앞서 구송되는 생불할망본풀이와 내용상 접맥되고 있는 것이다.

〈세경본풀이〉는 우리민족의 농경기원신화이며, 또 우리나라 백중의 기원을 알려 주는 신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이수자 1993), 여기에서도 서천꽃밭과 생명꽃은 중요한 신화소로 등장한다. 여주인공 자청비는 남중 정수남이 자신을 겁간하려 하자 그를 죽였는데, 부모로부터 일 잘하는 중을 죽였다고 꾸중을 듣자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으로 가 그곳의 사위가 되어 환생꽃을 얻어와 남중을 살린다. 그리고 문도령과 결혼한 후에는 남편을 서천꽃밭으로 보내 한달의 반을 그곳에서 보내도록 한다. 나중에 남편인 문도령이 죽었을 때는 이곳에 가서 다시

환생꽃을 얻어와 살리고, 하늘에 변란이 났을 때는 이곳에서 수레멜 망악심꽃과 환생꽃을 가져와 변란을 진압하고 그 공으로 오곡종자와 메밀씨를 얻어 지상으로 내려 오는 것이다. 세경본풀이에서도 생명꽃과 서천꽃밭은 이처럼 서사진행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전본풀이〉에서도 서천꽃밭과 환생꽃은 긴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이 신화는 가옥의 대문, 부엌, 측간, 오방토, 앞뒤의 문들을 지켜주는 신들에 관한 신화인데, 여기서는 죽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일곱째 아들인 막내가 서천꽃밭에 가서 도환생꽃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살아난 어머니는 나중에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이 된다. 이외에 저승에 있는 시왕과 판관, 그리고 저승차사를 맞이하여 행하는 제의인 〈시왕맞이〉에도 서천꽃밭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제의의 앞부분에 저승의 상황을 알려 주는 ‘해심곡’ 부분에 나온다(현용준 1980 : 222). 저승 지옥에는 열네 분의 시왕과 한 명의 판관이 있는데, 이 판관은 어린아이다. 열네 분의 시왕 중 열두 번째가 생불대왕이다. 그런데 이 대왕은 열다섯 이전에 죽은 아이들을 돌보고 이 세상에 살 때 아이를 못 나아본 사람을 위해 아이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서천꽃밭이어서 여기에는 서천꽃밭의 여러 양상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2) 서천꽃밭의 신화적 의미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공본풀이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신화소라 할 수 있는 서천꽃밭과 생명꽃 화소는 큰굿내의 여러 신화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다.

서천꽃밭은 원래 아기 산육신인 불도신 생불할망이 처음 만든 것이다. 이 여신은 하늘에 올라 동해용왕따님애기와 ‘꽃피우기 시합’을 벌여 이기고, 생불신이 된 후 사람을 잉태시킬 수 있는 ‘꽃씨’를 얻어, 가지고 와 이것을 심어 ‘서천꽃밭’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

불꽃'을 따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를 잉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서천꽃밭이 형성되는 데는 그 전제로 꽃피우기 시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꽃피우기 시합을 하는 내용은 생불할망본풀이에 앞서 천지왕본풀이에도 나오는 것이었다. 해와 달의 수를 조정한 후 쌍둥이 형제신이 서로 이승을 차지하려 할 때, 둘은 '꽃피우기'시합을 벌여 이승과 저승차지를 차지하고 있다. 천지왕본풀이와 생불할망본풀이에 나오는 바, 꽃피우기시합과 관련된 사실을 정리해보면,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이승차지신 : 저승차지신=변성꽃 : 시든꽃]으로 생불할망본풀이에서는 [생불신 : 질병신=변성꽃 : 시든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는 꽃을 잘 피우는 것을 곧 인간생명의 변성과 관련지어 생각했고, 꽃을 시들게 하는 것은 곧 생명을 병들게 하거나 죽이는 것으로 관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는 신화 형성집단이 인간의 생명체계와 식물의 생명체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인식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생불할망은 서천꽃밭을 만들고, 여기에서 생불꽃이라는 꽃을 따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잉태시킨다. 이렇게 보면 '생불꽃'은 인간의 생을 가능케 하는 꽃이 되는 것이다. 이공본풀이에 나오는 '악심꽃'은 인간을 죽게 만들었던 꽃이다. 이렇게 보면 사라도령의 아들 할라공이는 생불신과 반대의 기능을 가진 신이라 할 수 있다. 생불꽃과 악심꽃은 인간 삶의 가장 원론적인 두 문제인 생/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꽃들이 피어있는 서천꽃밭은 바로 인간 생명의 원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해명해 주는 신화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사람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고 끝맺게 했던 생명원천의 특수공간이며, 신화적 생명공간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 생명의 원천적 공간을 이처럼 별도로 상징하고, 신화를 창조했다는 것은 생불할망본풀이 및 이공본풀이를 창조한 집단이 본질적으로 중시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알게 해 준다. 그것은 바로 인간 생명에 대한 의경과 의구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는 것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왜

죽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볼 방법은 없는 것인지... 서천꽃밭은 이러한 의구심속에서 배태되고 형성된 공간이며, 인간생명의 본질을 해명해 주는 생명공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의 생/사를 해명하는 공간으로 설정된 서천꽃밭은 인간의 생명체계를 식물의 생명체계와 같은 것으로 보고 창조되었다 할 수 있다(이수자 1989 : 186-204). 인간생명을 좌우하는 꽃들이 피어있다는 서천꽃밭은 유한적 존재인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동경의 장소 또는 이상향적인 공간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곳은 생불할망본풀이와 상관있는 불도맛이의 놀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꽃타러듬>에는 군왕지지가 될 만하고, 마치 안개와도 같은 김이 항상 무럭무럭 솟고, 땅이 좋아서 꽃이 잘 자라며 나비와 풍뎡이들이 날아 다니고, 함박만한 꽃들이 수없이 많이 피어 있는 곳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공본풀이에는 큰물로 격리되어 있는 저편 어딘가에 존재하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3)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위상

이공본풀이에서 중요한 신화소는 생명꽃과 서천꽃밭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소는 이공본풀이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에서 고찰한 것처럼 큰굿내에서 구송되는 여러 신화에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꽃화소’의 맹아는 천지왕본풀이에 나오고, 생명꽃과 서천꽃밭이 마련되는 것은 생불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후 이공본풀이, 저승의 모습을 알리는 해심곡,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등에 이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서천꽃밭은 큰굿내의 여러 신화에 공통분모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의의 순서와 관련지으면, 신화형성집단은 생불할망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을 창조해 내고, 이공본풀이에서 이것을 보다 발전시켰으며, 시왕맛이에서는 이승의 못다한 삶의 원한을 풀어주는 보상작용으로 이곳을 활용했다. 그리고 세경본풀이에서는 세경신인 자청비가 그의 공업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

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문전본풀이 역시 이곳의 꽃을 이용하여 죽은 어머니를 살리고 있으므로 이런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와 같은 상황들은 이공본풀이라는 신화가 큰굿 및 여기에 나오는 여타의 신화들과 깊은 상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때문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는 큰굿내에서 이들과 함께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형성시기는, 이것이 인간의 생명체계를 식물체계에 비유하여 형성된 서천꽃밭 및 생명꽃을 작품의 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시기는 상당히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간 생명의 신비를 구명(究明)해 보고자 서천꽃밭과 같은 것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것이 실재한다고 관념될 수 있는 것은 중세나 근대와 같은 시기 보다는 신화시대 또는 제의시대나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 신화는 해와 달의 창생에 관여했던 신에 관한 신화, 생불신(=불도신)에 관한 신화,¹²⁾ 그리고 농경기원신화 등과 같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에 그 형성시기를 상당히 오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경기원신화 같은 것이 언제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새삼스레 논할 바가 아니라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보면, 이공본풀이는 무속제의인 열두거리 큰굿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과로 이것은 큰굿 속에서 이공신을 제의하기 위해 창조된 무속고유의 신화로 볼 수 있으며, 그 형성시기도 열두거리 무속제의의 형성과 맞물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이것은 안락국태자경과 같은 이야기를 수용하여 후대에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12) 필자는 생불신에 관한 신화(생불할망본풀이) 및 이 신에 대한 제의가 우리나라 삼신신앙을 형성시킨 모태가 아닌가 생각한다(이수자 1992).

IV. 본토의 무가에 남아 있는 이공본풀이의 흔적

이상에서는 제주도 무속제의인 큰굿속에서 이공본풀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살펴 이 신화의 신화적 의미를 추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큰굿내에서 이공본풀이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여러 차원에 걸쳐 살펴 보았다. 결과로 이공본풀이는 무속제의인 열두거리 큰굿이 형성될 때 이공신에 대한 제의를 위해 창조되고 형성된 무속고유의 신화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형성시기도 상당히 오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제주도에 이처럼 오랜 고형의 신화들이 무속제의속에 잔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가 가지는 여러가지 지리적·인문적 환경에 기인하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제주도가 가진 지리적 요인, 곧 이곳이 섬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정말로 무속제의에서 형성되고 창조되어 무속제의시 구송되었던 신화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제주도가 섬이어서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라 한다면, 큰굿내에서 창조되고 구송되었던 이공본풀이 같은 신화는 본토에서도 불렸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어디엔가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에는 본토의 무가를 중심으로 이공본풀이 같은 신화가 구송되었던 흔적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무속신화에 남아 있는 이공본풀이의 흔적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 중, 이공본풀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토의 무가는 ①평안도 강계지방의 채록본 <신신세턴님청배>(손진태 1930)와 ②경남 동래지역의 채록본 <오구대왕풀이>(문화재관리국 1971: 228-261), 그리고 ③경남 김해지역의 채록본 <악양국왕자노래>(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23-146) 등이 있다. 이 중 오구대왕풀이는 사후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산자가 생존시 행하는 굿인 산

오구굿에서 구송된 것이다. 본토의 지노귀굿, 셋김굿, 오구굿에서는 흔히 바리테기신화(오구대왕풀이)가 구송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바리테기 신화가 구송되었다. 그런데 이공본풀이 내용은 이런 바리테기 신화의 앞부분에서 바리테기의 아버지 오구대왕의 출생담으로 구송되었다. 즉 이공본풀이에 나오는 바의 할라꿈이신이 오구대왕이 된 것이다. 불나국의 왕이 무자하여 몽은사 절에 가서 부처님이 드실 다계수를 길어 나르는 공으로 왕비가 잉태를 하는데, 그녀는 이것을 알리려고 시녀 옥단춘과 함께 남편이 있는 절로 가다가 산적에게 잡혀 아기를 낳은 후 목매어 죽고, 시녀는 갓 낳은 아기를 안고 도망하여 절에 가서 왕을 만나 아기를 전하고 함께 궁궐로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커서 오구대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딸이 바리테기라고 한다. 이 무가는 앞부분이 이공본풀이와 내용상 유사한 점이 있으나, 꽃 밧 꽃밭 화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또 왕이 다계수를 기른다는 것은 지림사 연기설화나 석보상절에 나오는 안락국태자경과 내용상 상통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이공본풀이와 같은 것의 직접적인 흔적이란 보다는 2차 내지는 3차에 걸쳐 변용되며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소설적으로 풍부하게 변이되어 있는데, 그런만큼 이공본풀이의 변용 문제를 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다. 때문에 이것은 별고를 통해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악양국왕자노래는 내용상 이공본풀이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몇가지 부분은 차이가 있다. 무자(無子)했던 왕비가 권재 나온 중에게 시주를 하여 잉태를 하는 것, 시녀와 왕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꽃밭에 줄 물을 길기 위해 떠나는 것, 아들 악양국이 부친을 만나는 과정에 왕생가가 등장하는 것, 아들이 죽은 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을 때 하늘에서 악양국을 부르는 소리와 함께 꽃가마가 내려와 악양국이 이것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등은 이공본풀이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 들 중 많은 내용이 지림사 연기설화나 또는 안락국태자경

과 같다. 따라서 이 무가 역시 이공본풀이와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하기 보다는 사찰연기설화나 또는 불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공본풀이는 약심꽃의 유래를 밝히는 신화이면서 동시에 서천꽃밭에서 생명꽃들을 관장하는 신들의 근본을 밝히는 신화이기에 특히 ‘꽃’ 또는 ‘꽃밭’이 중시되었다. 그런데 함경도 지역에서 채록된 무가 신선세턴님청배는 특히 ‘꽃’ 또는 ‘꽃법’이 강조되고 있어서 주목이 된다. 원앙성부인과 산아수대왕은 꽃수래를 하려고 세턴국에 오지만 칠년 대한과 구런지수를 만나 꽃이 전부 죽는다. 이 죄로 그들은 하늘 옥황에 끌려 가는데, 원앙성부인이 태기가 있어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고 이들은 중도에서 헤어진다. 남편은 아들을 낳으면 안락동이라 하고, 딸을 낳으면 안악녀라 이름을 지으라 하고 간다. 이 무가의 서사적 진행은 여기에서 끝나고 이어서는 “원앙성부인 산아수대왕 죽은혼이 /세턴님으로 돌려노아 받게하여/그 때부터 꽃법이 낫습네다/화중지중에 모란화요/초록당데누지화요……(하략)” 하면서 계속하여 불도화, 작약화, 길경화 등등의 꽃이름을 열거하다가 마지막에는 “고혼아들고 혼말을/생겨주든 세턴님아/도청배에 오읍소사”라고 하면서 끝난다. 이 무가는 길어도 매우 짧고, 서사성도 아주 희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공본풀이와 같은 무가가 원래 무속에 있었던 흔적을 보여 주고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서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부부가 헤어지는 데서 끝나고 이어서는 곧 죽은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내용이 전승이 중단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꽃밭’이 중심이 된다는 점, 앞부분의 서사 내용이 이공본풀이의 전반부와 같다는 점, 그리고 후반부에서 꽃법운운 하는 것은 이 신화의 내용이 원래 꽃과 깊은 관련이 있었기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 점, 끝부분에서 계속 꽃이름이 나타나는 것도 원래 이공본풀이에서 꽃이 중요시되었던 흔적일 수 있다는 점, “원앙성부인 산아수대왕 죽은 혼이 세턴님으로 돌려노아 받게하여”를 통해서 원앙성부인과 산아수

대왕이 특히 ‘세턴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채록한 손진태교수는 이것을 “서천(西天)”이라 의역(意譯)했다. 이것은 발음상 유사성이 있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이공본풀이에 나왔던 바 서천꽃밭과 그 명칭이 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신선세턴님 청배는 내용상 많은 측면에서 이공본풀이와 상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이공본풀이와 같은 신화가 원래 본토의 무속제의에서도 불리웠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무속제의의 순서를 통해서 본 이공본풀이의 흔적

‘신선세턴님청배’는 신화 내용상 이공본풀이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공본풀이 같은 것이 본토의 무속제의에서도 불리웠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런데 실은 이상의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또 이 신화가 불리우는 제차를 따져 볼 때도 재구해 본 제주도의 큰곳의 구조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제주도 큰곳을 연구해 보면, 그 제차는 원래 초감제, 불도맞이제, 초공맞이제, 이공맞이제……의 순으로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종합적인 신맞이제인 초감제에 이어 아기사육신인 생불신에 대한 제의가 있었고, 무조신에 대한 제의가 그 다음이니, 이공맞이제에 앞서 이것이 행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초공맞이제와 이공맞이제가 연이어 있었던 것인데, 초공맞이제는 초공본풀이라는 신화가 불리웠고, 이어서 행해지는 이공맞이는 이공본풀이 신화가 불리웠던 것이다.

신선세턴님청배는 어떤 무속의례에서 어떻게 구송되었는지 그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이것이 채록된 <조선무력의 신가 2>를 보면 제의의 순서가 도청배푸념에 이어 마우님청배, 성조님청배, 성인님청배, 신선세턴님청배, 원구님청배의 순으로 되어 있다. 마우님청배는 여러 신들을 불러 모시는 것인데, 이것은 초감제에서 여러 신들

을 제청에 불러 모시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성조님청배는 가옥수호신인 성주신을 불러 모시고 행하는 굿거리다. 그리고 성인님청배는 황금산주제문장인 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서사적 줄거리는 없지만 황금산의 명칭 및 중에 관한 언급 내용을 중시하면, 이것은 제석본풀이, 즉 초공본풀이의 흔적을 담고 있는 것이다. 제석본풀이와 초공본풀이는 같은 서사무가로서 그 뿌리가 같은 것임은 이미 연구된 바 있다(서대석 1980). 신선세턴님청배에 이어지는 원구님청배는 에밀레종설화와 같은 내용의 서사무가로 인신공회를 통해 인경을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에밀레종 설화를 수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제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다. 제석본풀이를 초공본풀이와 같은 것으로 보고 또 성인님청배를 제석본풀이의 흔적으로 본다면, 성인님청배에 이어 신선세턴님청배가 행해지는 것은 바로 초공본풀이가 불리웠던 제의에 이어 이공본풀이가 불리웠던 흔적인 것이다. 즉 이것을 알기 쉽게 도표화하면,

[조선무격의 신가]

도청배 : 마우님청배 - 성조님청배 -

성인님청배 - 신선세턴님청배
(제석본풀이) (이공본풀이)
(초공본풀이)

- 원구님청배



[재구한 제주도 큰굿의 제차]

초감제 - 불도맞이제 -

초공맞이제 - 이공맞이제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 삼공맞이제

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신화 내용은 그 흔적만을 드리운채 거의 변했지만 무속 제차는 아직까지 어느정도는 그 본래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성주신에 대한 청배가 성인님청배나

신선세턴님칭배에 앞서 나오게 된 것은 이 신이 가옥수호신이기에 때문일 것이다. 무속제의에서는 그 직능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긴밀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 신들이 보다 강조되어 앞에서 제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신선세턴님이 구송되는 제의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이었는지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면, 본 논지의 전개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워낙에 자료가 소략하게 채록되어 있어 이 이상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이상과 같이 희미한 흔적을 근거로 해도 이공본풀이 같은 신화가 본토에서 불렸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공본풀이는 원래 무속제의에서 창조된 무속고유의 신화로서 고대에 무속제의에서 구송되었었는데, 이것은 현재 본토에서는 희미하게 그 흔적만 남아 있게 된 반면 제주도는 섬이어서 이것이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V.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문화사적 위상

이상에서는 이공본풀이가 무속에서 창조된 무속고유의 신화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이공맞이제의 제의적 성격과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어서는 큰굿 전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이공맞이제 및 이공본풀이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나를 검토한 후 본토에 나타나는 이공본풀이의 흔적을 살펴 보았다. 다음에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문화사적 위상을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이공본풀이는 현재 제주도 무속 중 큰굿에서 이공본풀이제차와 불도맞이제에서 불리우고 있는 무속신화다. 그런데 이것은 이공본풀이라는 신화 명칭을 중시할 때 원래는 ‘이공’이라는 신을 맞이하여 행했던 제의를 위해 창조되었고 여기에서 구송되었던 신화라 할 수 있다. 이 제의를 편의상 ‘이공맞이제’라 한다면, 이런 제의가 있었던

흔적이 바로 현재 큰곳에 있는 '이공본풀이제차'라 할 수 있다. 이공신에 대한 근본 내력을 설명하는 이공본풀이는 서천꽃밭에서 아기를 잉태시키는 생불꽃이나 인간을 죽게하는 수레멜망악심꽃,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환생꽃 등과 같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주화인 생명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신들에 대한 본풀이이다. 따라서 이공신이란 바로 서천꽃밭의 꽃을 관장하는 꽃수호신인 것이다. 이것은 췌드리얏혀살려움에 나타난 바 이공신이 꽃뿌리라고 하는 사실에서도, 이공신의 직능이 꽃수호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공본풀이에서는 서천꽃밭에 피어 있는 여러 주화 중 특히 수레멜망악심꽃이라는 꽃이 중시되고 있는데, 이 꽃은 원래 장자네 일족을 죽였던 꽃이다. 그런데 이공맞이제의 놀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악심꽃격음>을 보면, 이것은 바로 인간을 죽게 하는 꽃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공본풀이라는 신화가 원래는 인간이 죽게 된 기원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형성되고 창조된 신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화의 본질이 신성한 신의 일로부터 비롯하여 인간 사회의 제 현상이 어떻게 생겨났나를 설명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바로 신화내에 나오는 바 원강아미를 죽였던 탐욕한 장자를 악심꽃으로 징치했던 일로부터 비롯하여 인간이 죽게 된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우리가 이공본풀이를 이해하고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서사적인 구조 보다는 이것의 배경이 되는 공간요소로서의 '서천꽃밭'과 여기에 피어 있는 주화인 '생명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되는 제주도의 큰곳은 구조상 특별한 의미나 체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공본풀이가 불리는 '불도맞이제'나 '이공본풀이제차'도 구조상의 어떤 변별성이 없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재구해 놓고 보면, 이공본풀이 및 이 신화가 불리웠던 이공제는 큰곳 전체와 내밀한 상관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 구조적으로 볼 때, 이공본풀이 신화가 구송되는 '이공맞이제'는 큰곳 열두거리 중 네번째로 행해지던

제의였다. 큰굿 열두거리는 우주창생에 대한 관심, 인간 삶의 존재론적 차원인 생사에 대한 관심(생, 사, 사후, 장수), 식문제, 주거공간 문제, 혈연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초감제, 불도제, 초공제, 이공제, 삼공제, 시왕제, 멩감제, 세경제, 칠성제, 성주제, 분향제, 조상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중 네번째에 이공제(이공맞이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이공맞이제 및 이공본풀이가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 큰굿 전체와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공본풀이의 위상을 해명하고자 할 때 큰굿 전체 또는 큰굿에 나오는 바 이들 제의에서 불리우는 신화들과 함께 그 위상을 논해야 한다는 당위를 제공한다. 큰굿 열두거리 내의 무속신화에는 천지왕본풀이 같은 신화도 있고, 농경기원신화 같은 것도 있다. 그리고 뱀을 풍농신으로 관념하여 이를 제의하면서 창조했던 신화도 있다. 이 세상의 해와 달이 생성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천지왕본풀이나 오곡의 종자를 인간에게 전하는 농경기원신화, 그리고 뱀을 신체로 삼는 신화 같은 것은 후대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조선 중기 정도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신화다. 이들은 비교적 옛날, 즉 신화시대나 제의시대에 형성된 고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들과 같이 큰굿 열두거리 안에 몸담고 있는 이공본풀이 같은 것도 이런 시대에 형성된 신화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신화의 명칭으로 보아도 이것은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다. 이공본풀이는 초공·이공·삼공으로서 초공본풀이 및 삼공본풀이와 명칭상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신화 이름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해 보면 이들은 공교롭게도 굿거리의 순서, 즉 제의상의 순서도 초공제, 이공제, 삼공제로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신화 명칭과 제의상의 순서가 이처럼 일치하는 것은 이들이 원래 이처럼 순서대로 제의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순서상의 필요를 위해 신화 명칭도 초공·이공·삼공본풀이로 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 역시 이공본풀이가 초공 및 삼공본풀이와 유기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공본풀이의 위상을 초공본풀이나 삼공본풀이와 함께 관련지어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삼공본풀이는 차치하고 초공본풀이의 위상을 살펴 보자. 이것은 우리나라 무속의 시원을 설명하는 무조신(巫祖神)에 관한 신화다.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오면서 이것은 내용상 부분적으로 변모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 걸쳐 이것은 우리나라 무속의 시원을 설명하고 있기에¹³⁾ 이것의 형성은 무속제의의 형성과 함께 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초공본풀이의 형성이 우리나라 무속제의의 형성과 그 시기가 맞닿아 있다고 한다면, 이공본풀이 역시 그 형성은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공본풀이 신화의 핵심적 요소는 주화인 ‘생명꽃’과 ‘서천꽃밭’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시되었던 것은 인간죽음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악심꽃이었다. 서천꽃밭이란 신화형성집단이 우리들 인간 삶의 생과 사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이것을 해명하고자 설정한 신화적 생명공간인데, 이것은 제주도 큰굿내의 신화 중 생불할망본풀이, 이공본풀이, 시왕맞이 중의 핵심곡,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등 여러 신화에 공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서천꽃밭이 여러 신화에 공통분모로 등장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서는 이들이 서로 유기적인 상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 모두는 무속신화 이공본풀이가 독자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제주도 큰굿, 또는 큰굿내의 신화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천지왕본풀이, 아기 산육신이 실재한다고 하는 신앙이나 이에 관련된 신화, 그리고 농경기원신에 관한 신화 등은 그 형성 시기가 매우 거슬러

13) 초공본풀이는 무법을 창조한 무조신(巫祖神)에 관한 신화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나라 무법의 시원을 설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과 우리나라 무속제의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련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고를 통해 보다 심도있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공본풀이의 형성 역시 그 시기는 상당히 오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큰굿 전체를 중심으로 신화 명칭, 이공맞이제의 위상, 서천꽃밭이나 생명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공본풀이 신화는 큰굿내의 여타의 제의나 신화들과 유기적인 상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이것은 따로 독립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무속제의인 큰굿내에서 여타의 신화들과 함께 형성된 무속신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큰굿내에 나오는 신화들이 해와 달의 창생에 관계된 신화인 천지왕본풀이, 인간을 탄생시키는 생불할망본풀이, 무속제의의 시원을 설명하는 초공본풀이, 농경의 기원을 설명하는 세경본풀이, 뱀을 신으로 하는 칠성본풀이 등이 있는 것을 보면, 이공본풀이 신화의 형성은 매우 오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큰굿의 제의언어 여기 저기에 여타의 신들과 함께 이공신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게 된 것도 사실은 이처럼 이공본풀이가 무속의 형성시 함께 창조되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공본풀이를 무속제의가 창조될 때 형성된 무속고유의 신화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만약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한 것이라 한다면, 그리하여 이것이 적어도 조선 초·중기 이후에나 형성된 것이라 한다면, 이 신화 및 이 신화가 불리우는 이공맞이제와 같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생불할망본풀이나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 그리고 이들이 불리우는 여러 제의 및 제주도 큰굿도 형성시기를 이처럼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다. 적어도 천지창생에 관련된 천지왕본풀이나 농경기원신화 같은 것이 이 시대에 형성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되는 제주도 무속현상만을 중시하고 또 이공본풀이 신화 한편만을 놓고 볼 때는 이 신화의 의미나 제의상의 특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신화가 안락국태자경의 내용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라 해도 이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아니, 어쩌면 이와같이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현존하는 본토의 무속신화 중에는 설화를 수용하여 형성된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무속신화도 이런 현상을 보여, 이공본풀이도 본토의 이야기를 수용하여 형성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 큰굿 전체를 문제삼고, 여기에서 차지하는 이공신, 이공맞이제, 이공본풀이의 내용과 위상을 살펴 보면 이 신화는 무속에서 형성된 무속 고유의 신화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것이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아니 이것은 안락국태자경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안락국태자경을 형성한 모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무속신화 이공본풀이는 안락국태자경이 구비 설화화된 것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무속 고유의 신화라 본다. 이것은 고대에 우리 민족이 이 세상 및 인간사 여러 가지를 관장하는 수많은 신이 실재한다고 믿고, 이들 신에게 인간의 복락을 기원하기 위해 열두거리로 구성된 무속제의를 창안하여 제의를 행하면서 창조한 신화이다. 여기에 나오는 서천꽃밭은 특히 인간사 생사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해 보기 위해 창조한 신화적 공간이고, 생사를 관장하는 생명꽃과 이런 것이 피어난 곳이 있다는 사고는 인간의 생명체계를 식물의 생명체계와 같은 것을 보고 형상화해 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이 신화가 무속제위에서 불렸던 것이 제주도와 평안도 지방에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섬이어서 비교적 문화 접변이 적다. 또한편 세습무적 성격이 강한 심방이 많다. 그리고 굿이 생활과 밀착되어 있어서 신화 구송의 기회도 많다. 제주도에서는 심방이 굿을 행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신화들을 구송할 때 구경꾼들이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심방으로 하여금 무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 노릇을 하기도 한 것이다.¹⁴⁾ 이와 같은 여러가지 지리적·인문적인 환경 때문에 제주도의 무속 및 무속신화는 비교적

온전하게 지켜내려 온 것이다. 제주도의 큰굿내에 비교적 고품의 신화나 제의언어가 남아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요인에 기인한다. 물론 이들도 그 전승 기간이 긴만큼 부분적인 변모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평북 강계가 증강진 아래에 있는 지역임이 맞다면, 산악밀이고 북쪽 끝인 이곳도 문화접변이 크게 일어날 지역은 아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비하면 이곳은 상당히 개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선세턴님청배’라는 무가가 이곳에 희미하게나마 이공본풀이와 유사한 흔적을 드리우면서 구송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이 신화가 초공본풀이(제석본풀이)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 신화에 이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더 큰 놀라움인 것이다. 재구해 본 제주도의 큰굿에서는 초공본풀이 신화가 구송되는 초공맞이제에 이어 그 다음이 이공본풀이가 구송되는 이공맞이제였었는데, 강계 지역에서 신선세턴님청배가 초공본풀이(제석본풀이)에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구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평안도에서 같은 내용의 신화가 전하고, 또 굿의 구조적 모습도 같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것은 우리의 무속제의가 원래 이처럼 초공맞이제에 이어 이공맞이제가 행해졌었던 것이고, 여기에서는 초공본풀이와 이공본풀이 같은 신화가 구송되었었는데, 이들은 각 지역에 전승되면서, 한쪽에서는 비교적 제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데 반해 다른 지역에는 많은 변이를 나타내 지금은 그 흔적만 드리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양 극단에 있는 두 지역에 유사한 무가가 전승되고 있는 것은¹⁴⁾ 문화접변에 의해서라기

-
- 14) 강정식(1988 : 263)은 제주도에서는 심방이 굿을 하면서 마음대로 제차를 생략하거나 본풀이를 성의없이 구연하면 구경꾼들 사이에서 당장 평가가 내려지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이런 항의가 계속되면 단골을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심방은 무의에 매우 충실히 임한다 하고, 이런 관습이 있어 제주도 무속이 고태(古態)를 많이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15) 제주도와 평안도, 제주도와 함경도 지역과 같이 우리나라의 양 극단에 유사한 무가가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대석(1968) 교수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보다는 지역적 환경적 요인에 비롯되었을 것으로 본다. 제주도에 고대소설이 별로 성행하지 않았다는 것은¹⁶⁾ 이 지역이 본토의 문화와 얼마나 많이 단절되어 있었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속신화 이공본풀이가 무속내에서 창조된 무속 고유의 신화라 한다면, 이 신화가 언제 형성된 것인가는 열두거리 큰굿이라는 무속제의가 언제 형성된 것인가가 해명되어야 할 일과 맞물려 있다. 이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고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먼후일 별고를 통해 다시 논해 보고자 한다. 이공본풀이는 무속제전에서 창조되었고 구송되었던 무속고유의 신화였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사물 중 이 신화처럼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없다. 어디론가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남편이 설정되고, 이 일로 하여 부부간의 어쩔수 없는 헤어짐이 야기되는데 이것이 더군다나 부인의 잉태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비극성이 크다. 잉태한 몸이면서도 장자에게 몸을 빼앗길 뻔하는 수모를 감당해야 하는 여자로서의 원천적인 불행이 나타나고, 남편 없는 가운데 아이를 낳는 여자의 슬픔이 제기되면서, 아버지 없는 가운데 태어난 아들과 그가 죽음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면서까지도 부친을 찾아 가려고 하는 혈육의 끈끈함, 그리고 남편을 찾아 떠나간 아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비극, 자신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어머니의 시신을 보는 아들의 비극적이고도 절망적인 상황, 여기에 대한 처절한 복수 등등이 모두 슬픔을 자아 내는 것이다. 마지막은 물론 어머니를 살려 서천꽃밭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서 행복하게 끝나지만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 마다에는 슬픔이 저려 있고, 비극이 넘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꽃이나 꽃

16) 강정식(1988 : 285)에 의하면, 제주도에겐 고전 소설이 많이 읽혔던 흔적을 찾기 어렵다 하며, 간혹 소설이 발견되는 일이 있어도 일반 부녀자에게 읽혔을 가능성은 없는 듯하다고 한다.

발 같은 것도 나와서 사람들에게 어떤 신비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보면 이 신화는 문화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 내용을 한번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과 감명을 주게 되어 나중에 인구(人口)에 회자되기 시작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제전을 벗어나 전설로도 수용되고 불경 및 소설로도 형상화되면서 문자화·기록화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지림사 연기설화나 안락국태자경, 그리고 고대소설 안락국전인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는 이들 이공본풀이계 서사물들의 형성과정 및 이들의 상호관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여 발표해 보고자 한다.

이공본풀이 신화가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 한다면,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비교·연구하여 그 결과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온당한 논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지면을 요하기 때문에 형편상 다음에 ‘지림사 사찰 창건과 연기설화와의 상관성’을 고찰하거나 아니면 ‘지림사 연기설화와 안락국태자경의 내용을 비교·고찰’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잠시 그 핵심만을 언급하여 이공본풀이가 안락국태자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논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안락국태자경과 이공본풀이는 서사구조는 같지만 이것을 장식하는 부분적인 요소들은 전혀 다르다. 예를 들면, 안락국태자경에는 광유성인(부처님)과 왕생계(往生偈) 내용이 아주 중요하여 이것을 빼고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공본풀이에는 이런 요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서천꽃밭이나 생명을 좌우하는 꽃이야기가 더 긴요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공본풀이가 구비설화화된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라 한다면, 구비전승의 성격상 이공본풀이에는 적어도 한마디라도 왕생계 내용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것은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된 악양국왕자노래를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는 왕생계

및 부처님 이야기가 부분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공본풀이에는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이공본풀이가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것은 신선세턴님칭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도 왕생계나 불교적인 요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 무가는 결코 불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기에 이들은 그 형성이나 발생을 무속에서 자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I. 맺음말

제주도의 무속에서 불리우고 있는 신화 <이공본풀이>는 그간 국문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이것은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가 본토의 무가에도 있고, 지림사의 연기설화로도 존재하며, 「석보상절」에는 <안락국태자경>이라는 불경으로, 그리고 <안락국전>이라는 고대소설로도 전승되고 있고, 또 불화 중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그린 변상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문학적으로는 신화·전설·불경·소설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제재가 넘나들고 있으며, 같은 내용이 회화로도 잔존하고 있어서 문학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의 연구 결과는 무속신화 이공본풀이가 본토의 석보상절에 나오는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되었다고 연구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결과에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시도한 것이다. 곧 이공본풀이 신화는 석보상절에 나오는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무속의 시원시 형성된 무속고유의 신화로 보아야 하고, 지림사의 연기설화나 석보상절의 안락국태자경, 고대소설 안락국전 등의 형성은 오히려 이것을 모태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 무속내에서 차지하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위상을 고려하고, 또 신화가 전설, 민담, 소설 등을 이루는 소재적 원천이 된다는 일반적인 학설을 증시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고는 일단 제주도 무속계의인 큰굿속에서 신화 이공본풀이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이 신화가 무속 고유의 신화이며, 무속의 시원시 형성된 신화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타진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제주도 무속에서 이공본풀이가 구송되는 제의 현상을 중시하여 이 신화의 신화적 의미를 살펴 보았다. 이공본풀이는 현재 이공본풀이제차와 불도맞이제에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공신에 대한 본풀이이므로, 원래는 이공이라는 신을 맞이하여 행했던 '이공맞이제'에서 불렸던 신화로 볼 수 있다. 이공본풀이는 서천꽃밭에서 아기를 잉태시키는 생불꽃, 인간을 죽게하는 수레멜망악심꽃,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환생꽃 등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주화인 생명꽃들을 관장하는 신들에 대한 본풀이이다. 여기서는 특히 수레멜망악심꽃이라는 꽃이 중시되는데, '악심꽃격음'이라는 놀이를 보면, 이 꽃은 인간을 잡아가는 꽃이기 때문에 격어버리는 것으로 나온다. 악심꽃이 곧 인간을 죽게 하는 꽃으로 설정된 것과 이공본풀이에서는 특히 악심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공본풀이라는 신화는 곧 인간이 죽게 된 기원적 사실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신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화의 본질이 신성한 신의 일로부터 비롯하여 인간 사회의 제현상이 어떻게 생겨났나를 설명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바로 신화내에 나오는 바 원강아미를 죽였던 탐욕한 장자를 악심꽃으로 징치했던 일로부터 비롯하여 인간이 죽게 된 기원을 설명한 것이라 하겠다.

III장에서는 무속신화 이공본풀이가 현재 제주도 큰굿 속에서 불리우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신화 명칭을 통해, 제의언어 속에 나오는 이공신의 언급을 통해, 제주도 큰굿의 전체 구조속에서, 그리고 이 신화 중 중요 요소라 할 수 있는 '서천꽃밭'적 요소를 통해, 이 신화가 제주도 큰굿 전체에서 여타의 제의나 신화들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

관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이공본풀이라는 신화는 제주도 큰곳내에 나오는 신화 중 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라는 신화와 명칭상 연계성이 있다.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라는 의미에 존칭의 의미 ‘공’이 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신화는 초공본풀이 및 삼공본풀이라는 신화와 같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함께 그 위상을 논해야 한다. 제의언어 중 초감제 부분의 군문열음, 새두림, 그리고 셋드리앉혀살려움에는 큰곳에서 모셔지는 신들이 순서대로 죽 열거되는데, 여기에는 천지왕, 생불신, 초공신, 세경신 등 여타의 수많은 신들과 함께 이공신이 언급된다. 이것을 통해서는 이공신이 원래 이들과 같은 상황에서 창안된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되고 있는 31개의 제차에는 구조상의 특징이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을 어떤 원리에 따라 재구해 보면, 제주도의 큰곳은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열두개의 작은 제의(거리)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제의라는 것이 드러난다. 여기에는 우주 창생에 관여했던 신에 대한 제의를 포함하여 농경기원신에 대한 제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번째 거리에 이공신에 대한 제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공신에 대한 제의가 후대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큰곳이 형성될 당시 함께 구성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공본풀이는 서천꽃밭에서 주화를 관장하는 신들에 관한 본풀이인 만큼, 서천꽃밭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이 꽃밭은 이 신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큰곳내의 신화 중 생불할망본풀이, 시왕맞이 중의 해심곡,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등에도 나오는 것이다. 서천꽃밭은 원래 아기 산육신인 생불신이 만든 것이다. 이 신에 대한 제의는 이공신에 대한 제의보다 앞서서 행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불리우는 생불할망본풀이를 보면 이 꽃밭은 생불할망이 하늘에서 인간을 잉태시키는 꽃씨를 받아다가 지상에 만든 것이다. 이공본풀이의 서사적 근간을 이루는 서천꽃밭이 여타의 신화에도 함께 공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공본풀이의 형성을 이들 신화들과 함께 연결하여 고찰해야 한다는 당위를 제공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이공본풀이는 큰굿내에 나오는 여타의 신들이나 신화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큰굿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공본풀이는 큰굿의 형성시 창조된 무속 고유의 신화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큰굿내에 천지왕본풀이나 농경기원신화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면, 그 형성시기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이공본풀이가 무속 고유의 신화로서 무속의 시원시 형성된 신화라 한다면, 본토에도 이것이 불리웠던 흔적이 있을 것이라 보고, 이것을 추적하였다. 본토에 남아 있는 이 계통의 무가로는 평북 강계지역의 '신선세턴님청배'와 김해지역, 그리고 동래지역의 자료가 있는데, 이 중 신선세턴님청배가 바로 이 신화가 본토에서도 불리웠었다는 흔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일단 제차의 구성상 초공제에 이어서 행해졌던 흔적이 있고, 또 무가 내용도 서사구조가 같고 꽃 및 꽃법이 중시되고, 서천이라는 지역상의 명칭도 일치한다.

V장에서는 앞서의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무속신화 이공본풀이가 무속 고유의 신화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모태가 되어 여타의 이공본풀이계 서사물들이 형성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앞선 연구에서는 이공본풀이가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라 했는데, 만약 이렇게 본다면 이공본풀이의 형성시기는 빠르면 조선중기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신화와 같은 연결고리로 묶여 있는 천지왕본풀이나 생불할망본풀이, 그리고 세경본풀이도 같은 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논리상 모순이 있다. 해와 달이 창생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화나 인간을 점지하고 잉태시키는 여신에 관한 신화, 그리고 오곡종자의 기원을 설명하는 농경기원신화 같은 것이 이 시기에 형성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공본풀이는 무속의 시원시 형성된 무속 고유의 신화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보면 이것은 본토의 석보상절에 나오는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 아닌 것이다. 무속신화 이공본풀이는 무속의 시원시 형성된 것이

다. 제주도는 섬이고, 세습무가 많고, 굿이 생활과 밀착되어 있어서 신화 전승의 기회가 많아 그 내용이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었지만, 평안도에서는 많은 변모가 생기고 흔적만 희미하게 남았다.

무속 신화 이공본풀이는 서사 내용상 한가족의 비극적인 이합집산을 그리고 있고, 특정한 신성공간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무속제전을 떠나 전설이나 민담, 그리고 소설로도 수용·변이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우리 국문학사에서 이 신화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데, 이 신화는 실제로 지림사의 연기설화나 안락국태자경, 그리고 고대소설 안락국전으로 수용·변모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신화가 소재적·제재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변이되면서 문학화되었나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자료

- 김두원(1963), 「제주무가집」(필사본무가집).
 문창현(1929-45), 「풍속무음」(필사본무가집).
 문화재관리국(197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남도편.
 손진태(1930), “朝鮮巫覡の神歌”(청구학보 22호), 「손진태선생전집」
 (1981) 5권(서울, 태학사).
 진성기(1968), 「남국의 무가」(제주민속문화총서).
 _____(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서울, 민속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8-9, 경상남도 김
 해시·김해균편.
 韓國學文獻研究所편(1977), 「韓國寺志叢書 第十一輯, 佛國寺誌(外)」
 (서울, 아세아문화사).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서울, 친구문화사).
 장주근(1973), 「韓國의民間信仰」, 자료편(일본, 金花舎).
 赤松智城·秋葉隆(1937), 「朝鮮巫俗の研究」上(서울, 조선총독부).

－논저

- 강정식(1988),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문학연구」
 7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우리문학연구회편).
 김선풍(1993), 「민속문학이란 무엇인가」(서울, 집문당).
 김열규(1971), 「한국민속과 문학연구」(서울, 일조각).
 서대석(1968), “서사무가연구”(서울대석사학위논문, 미간행).
 _____(1980), 「한국무가의 연구」(서울, 문학사상사).
 사재동(1967), “안락국태자전연구”, 「충남대 어문연구」 5집(충남, 충

남대학교).

_____ (1984a), “안락국전의 연구”, 「충남대 어문연구」 13집(충남, 충남대학교).

_____ (1984b), “안락국태자경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1호.

왕 빈(1980), 「신화학입문」(서울, 금란출판사).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이대박사학위논문, 미간행).

_____ (1990), “제주도 큰굿의 구조적 원형과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7집 (제주도연구회).

_____ (1992),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교수 화갑기념논총, 도서출판 제주문화).

_____ (1993), “백중의 기원과 성격”, 「한국민속학」 25집 (서울, 민속학회).

장덕순외(1971), 「구비문학개설」(서울, 일조각).

장주근(1986), 「한국민속논고」(서울, 계몽사).

조동일(1978), 「우리문학과와의 만남」(서울, 흥성사).

현용준(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서울, 집문당).

熊谷宣夫(1969), “靑山文庫藏 安樂國太子經變相”, 「김재원박사화갑기념논총」 (서울, 을유문화사).

Raglan, Lord(1958), “Myth and Ritual”, 「Myth a Symposium」(Thomas A. SeBeok ed.), Pp. 122-35,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The Mythological Importance of “Igong-bonpuri”(a Shaman Myth)

Lee, Soo Ja

Ewha Woman's University

“Igong-bonpuri” is a shaman myth recited in the shamanistic practices in Chejudo. Its synopsis is as follows:

The husband, named as Administrator of “Sochon” flower garden, set out with his pregnant wife towards the new work place. But she was forced to give up the journey because of her physical condition. Finally, they parted each other: The husband went on his way and the wife was sold and left behind as a servant in the house of “Changja” (denomination of a rich man). Changja, lustful and greedy, tried to violate her in vain. She managed to protect herself well and later gave birth to a boy. Her son, once grown up, escaped from Changja's house to go to “Sochon” flower garden, looking for his own father. This made Changja furious enough to do away with the mother. Following a revenge by killing Changja, the son saved his mother's life with the “Flower of Life” which his father had given to him, and the son returned to Sochon flower garden with his mother.

This kind of story, somewhat like a myth, passed on generations through different ways in the (Korean) Peninsula. We can see it in a shaman song, in the legend(legend of origin of Chirim Buddhist temple), in the Buddhist scripture of “Sok-bo-sang-jol”(Anrakguk-taeja-gyong) and even in the novel(Anrakguk-jon). Throughout years, the Igongbonpuri has been brought up with academic interests and the theory that the story was influenced by Buddhist scripture

(Anrakguktaeja-gyong) of Korean Peninsula has been established up to now.

This paper is written with the purpose that this theory might be reconsidered. If we look into the importance of "Igong-bonpuri" through mythical titles, shamanistic languages, the 12 structures in the big shamanistic practices and "Sochon" flower garden, it is obvious that the "Igong-bonpuri" is a myth created at the same time when shamanistic practices formed.

It can be heard the recitation of Igong-bonpuri in Chejudo as well as Pyongando. Geographical differences explain quite clearly why "Igong-bonpuri" is well preserved its original form in Chejudo, while it is modified in Pyongando. "Igong-bonpuri" was created with the formation of shamanistic practices and accordingly we have to trace its origin in the remote past. This leads us to the conclusion that "Igong-bonpuri" had influence on development of the legend of origin of Chirim Buddhist temple or the Buddhist scripture rather than it was influenced by "Anrakguktaeja-gyong".